

는가 하는 것—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내가 혹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 이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나에게 생각하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이다.

## 봄의 숨소리

안 병 무  
《한국신학연구소 소장》

동양에서는 「삶」이 곧 「숨」이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을 뜻한다. 수도생활에 있어서도 호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숨쉬기가 골라야 몸도 정신도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선(禪)이나 요가 등은 호흡법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숨쉬는 대기(大氣)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다. 대기를 마시고 내뿜는 것을 계속해야 산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소를 내뿜는 것에 국한한 뜻은 아니다. 대기란 바로 우주의 숨이다. 그러므로 숨쉬는 것은 우주의 숨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것을 정기(精氣)라고도 한다. 우주는 서구적 과학이 말하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삶 자체 또는 근원으로 알고 있다. 즉 정신적인 어떤 실재다. 우리 말에 편자라는 말 대신 소식(消息)이란 말이 있

다. 『은총 소식이 있소?』 할 때는 잘 사는 뜻이다. 그런데 그 어원이 말하듯이 숨을 잘 쉬느냐는 말이다. 그것이 돈을 잘 벌었느냐, 좋은 지위를 얻었느냐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본래 뜻과는 달라진 것이다. 소식이란 우주적 정기와 조화되어 있느냐는 뜻이다.

저울은 대지(大地)와 그 위의 자연이 숨쉬는 것을 정지한 때다. 봄과 더불어 일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것을 뚫고 새싹이 나며 앙상하던 나무들이 푸른 기를 띠며 새로운 순을 내미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의 숨쉬기다. 그래서 봄은 삶의 약동을 느끼게 한다.

이에 대해서 바오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근원은 우주나 정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쉬는 것이 참 삶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특이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지고 산다는 사실이다. 십자가는 죽음인데 왜 그럴까? 바오로는 사람이나 자연 또는 우주를 동양의 사고에서처럼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고 있다고 본다. 까닭은 그것은 「사멸의 종살이」 또는 「허무한 것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서 해방되려고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자연 자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속박하고 혹사하여 제 모습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 그것을

노예화하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구조적인 악이 자연을 순리대로 활용하지 않고 「정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새로운 인간(하느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린다. 까닭은 그들에 의해서만 비로소 「허무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새가 운다』, 『벌레가 운다』라는 우리의 표현이 바로 그가 보는 눈과 상통한다.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다. 해방되기 위한 애절한 절규다.

그런데 그러한 임무를 면 사람들도 낯은 세계의 쇠사슬에 매여 신음하고 있다. 까닭은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다. 여기에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 십자가는 바로 인간을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과 유리되어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행(苦行)주의의 노예일 수는 없다.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낯은 구조악과 마침내 죽음까지 정복,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부활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동시에 환희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은 아니다. 그의 부활은 새로운 삶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다음의 열매, 즉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고통이 아니다. 신 땅을 떠날 때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숨을 내쉬는 봄의 숨소리 그것이다.